



인공지능 입문

Part 01. 인공지능의 이해

Chapter 03. 인공지능과 윤리

목차

- 1. 인공지능 특이점
- 2.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 3. 인공지능의 윤리적 딜레마
- 4. 인공지능 윤리안
- 5. 인공지능 윤리규범 및 동향

01 인공지능 특이점

I. 인공지능 특이점의 개념

- 특이점(Singularity)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으로, 사람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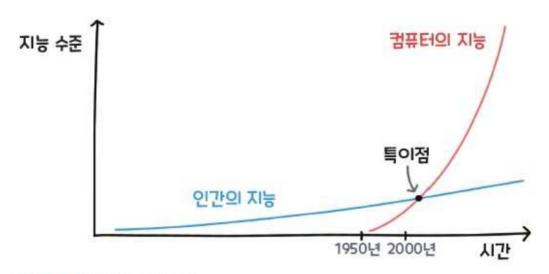


그림 3-1 인공지능 특이점

!. 인공지능 특이점의 개념

- 특이점에 도달하는 시대에는 컴퓨터가 자신보다 발달한 인공지능을 직접 설계 및 제작할 것이며, 그 인공지능은 자신보다 더 좋은 지능을 가진 또 다른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임
- 우리가 특이점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에 대한 통 제력과 관련이 있음



그림 3-2 특이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

!. 인공지능 특이점의 개념

- 영화《매트릭스(The Matrix)》
 - 무대는 2199년 인공지능 기계와 인류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구
 -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
 - » 인공지능의 비예측성과 통제 불능성이 인공지능 특이점을 앞둔 시점에 중요 한 쟁점이 되고 있음



그림 3-3 영화 《매트릭스》: 인공지능이 인류를 통제하는 세상

- 인공지능 특이점에 대한 논쟁은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더 격화
- 학자들은 반(反)인공지능파(반대론자)와 친(親)인공지능파(찬성론자)로 나 뉘어 각자 주장을 펴고 있음



그림 3-4 반인공지능파와 친인공지능파의 주장

Ⅱ. 인공지능 특이점의 쟁점

1) 반인공지능파의 주장

- 반(反)인공지능파는 인공지능이 현재 속도로 성장하면 곧 인간의 통제를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대표적인 반인공지능파
 -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
 -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Elon Musk)

- 1) 반인공지능파의 주장
- 사회적 불평등 가속화
 -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경제적 활동이 차단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와 같음
 -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생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함



그림 3-5 아마존의 로봇 배송 서비스 프라임(prime)

- 1) 반인공지능파의 주장
- 통제 불가능성
 - 특이점 이후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됨
 - 이때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



그림 3-6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해치려는 모습

Ⅱ. 인공지능 특이점의 쟁점

2) 친인공지능파의 주장

- 친(親)인공지능파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역시 신기술이 나타날 때 겪는 성장통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주간지의 기고문에서"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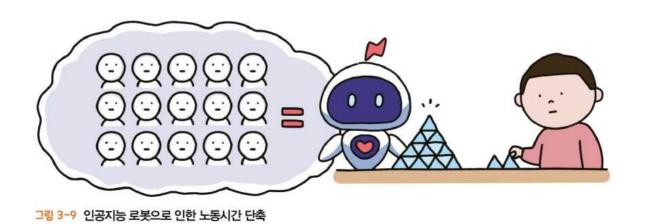
그림 3-7 "인공자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2) 친인공지능파의 주장
- 생산의 효율성
 -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난 사고를 줄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그림 3-8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한 생산 효율성 향상

- 2) 친인공지능파의 주장
-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 » 인간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 가능
 - » 인간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 투자



- 2) 친인공지능파의 주장
- 인공지능의 통제 가능성
 - 인공지능의 통제/제어가 가능하다고 믿음
 -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충분히 통제 가능 주장



그림 3-10 인공자능의 통제 가능성

Ⅱ. 인공지능 특이점의 쟁점

하나 더 알기 인공지능의 통제 : 킬 스위치

- **킬 스위치(Kill Switch) :** 인공지능이 이상반응을 보일 때 외부에서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
- 구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나 통제를 벗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반역'이 예상되는 상황일 때 즉각 안전 정지시켜 위험을 차단하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 주목받는 인공지능 윤리

- 사례 1 :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 일부 사용자들이 '이루다'의 학습 능력을 악용해 부적절한 단어들을 주입
 -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가감 없이 내놓는 사태 발생
 - 서비스 시작 20일 만에 서비스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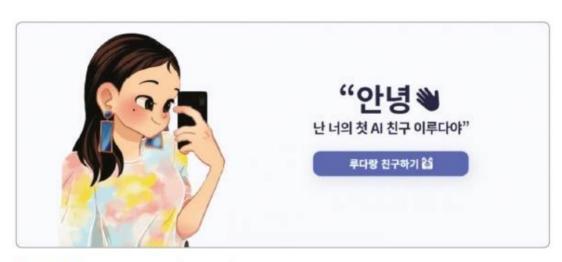


그림 3-11 인공자능 챗봇 '이루다'

. 주목받는 인공지능 윤리

- 사례 2 : 재범률을 예측하는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 인공지능은 흑인의 재범률을 백인에 비해 실제보다 더 높게 추론함
- 사례 3 : 아마존(Amazon)의 채용 인공지능
 -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프로그램의 여성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프로그램을
 자체 폐기



그림 3-12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면서 발생한 문제

Ⅱ.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 MS 최고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화두를 던짐
 - "인공지능 활용에 앞서 윤리가 우선시돼야 한다."



그림 3-13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Ⅱ.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 구글의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 사례
 - 이미지 인식 중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
- 위챗(WeChat) 번역 과정 사례
 - 니그로(Negro)라는 단어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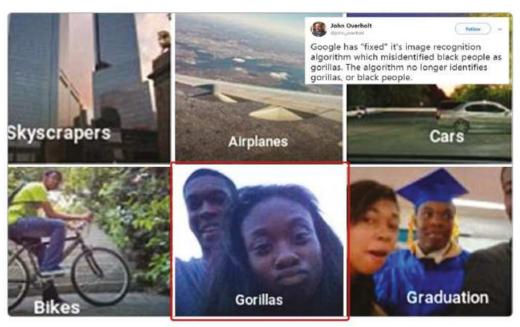


그림 3-14 구글의 이미지 인식 오류 사례

Ⅱ.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 MIT 미디어랩의 발표 자료
 - 인공지능이 백인 남성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확률은 1%
 - 흑인 여성의 경우 오류 발생 확률이 35%까지 상승
-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짐
-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데이터를 주입할 것인지는 인간의 몫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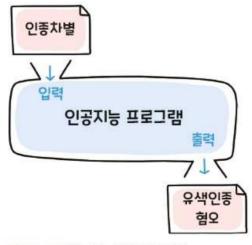


그림 3-15 인공자능의 윤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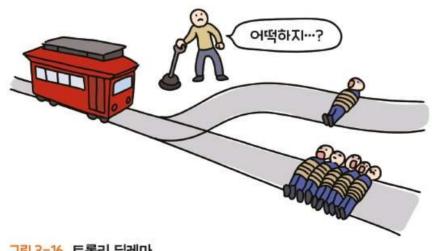
I. 트롤리 딜레마

-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 윤리학 분야의 사고실험 중 하나
 -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에대한 질문
 - 트롤리 딜레마와 관련된 대표 사례
 - » 트롤리 사례
 - » 육교 사례

I. 트롤리 딜레마

1) 트롤리 사례

- 트롤리 전차가 철길 위의 5명의 인부들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
- 당신 옆에 트롤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일 변환기가 있음
 - » 트롤리의 방향을 왼쪽으로 바꾼다면 왼쪽 철로에서 일하는 1명의 인부 사망
 - »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5명의 인부들 사망



I. 트롤리 딜레마

2) 육교 사례

- 철길 위 5명의 인부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트롤리를 육교에서 보고 있음
- 당신 옆에 몸집이 큰 사람이 있는데, 전차를 세우려면 이 사람을 육교 아래로 떨어뜨려야 함
- 떨어진 1명의 사람은 죽겠지만, 철길 위의 5명의 인부들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음



Ⅱ. 인공지능이 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 자율주행차의 트롤리 사례



- (a): 여러 사람이 희생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선택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 (b): 자율주행차는 그냥 보행자를 치고 지나가야 할까, 아니면 운전자가 다치 게끔 방향을 꺾어야 할까?
- (c) : 여러 사람의 목숨과 운전자의 목숨 중 자율주행차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할까?

Ⅱ. 인공지능이 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 앞의 [그림 3-18]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닥뜨리게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이슈
- 더 늦기 전에 알고리즘의 윤리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3-19 사람과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중 잣대

04 인공지능 윤리안

I.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Asilomar Al Principles)
 - 인공지능 개발의 목적, 윤리, 가치 등에 대해 개발자가 지켜야 할 23가지 준칙
 - 이 원칙은 연구 관련 쟁점, 윤리와 가치, 장기적 이슈 등 총 3가지 부분으로 구성



그림 3-20 이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I.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1) 연구 관련 쟁점

- 연구 목표, 연구비 지원, 과학정책 연계, 연구 문화, 경쟁 회피 등

2) 윤리와 가치

- 안전, 실패의 투명성, 사법적 투명성, 책임성, 가치 일치, 인간의 가치, 개인정보보호, 자유와 프라이버시, 이익의 공유, 번영의 공유, 인간 통제, 사회전복 방지, 인공지능 무기 경쟁 지양 등

3) 장기적 이슈

역량 경고, 중요성, 위험성, 자기개선 순환, 공동의 선 등

Ⅱ. 로봇 3원칙

- 로봇 3원칙(The Three Laws of Robotics)
 - 로봇이 반드시 따라야 할 3가지 원칙
 - 로봇 3원칙을 제시한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Issac Asimov)는 이 원칙들만 잘 지킨 다면 로봇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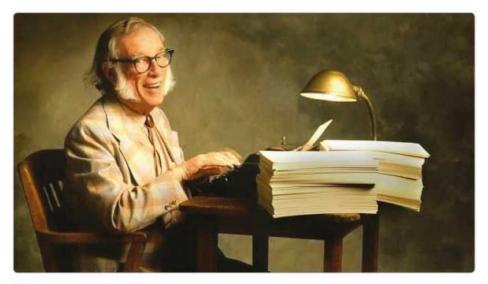


그림 3-21 로봇 3원칙을 제시한 아이작 아시모프 작가

Ⅱ. 로봇 3원칙

- 로봇 3원칙의 내용
 -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 제2원칙: 제1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림 3-22 로봇 3원칙

Ⅱ. 로봇 3원칙

- 이후 아이작 아시모프는 단편소설인 『로봇과 제국(Robots and Empire)』에서
 로봇 0원칙을 추가 제안함.
 - » 로봇 0원칙: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가할 만한 명령을 받거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제1원칙의 확장).

라 국가적 차원의 노력

1)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이용에 대한 지침' 발표

표 3-1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이용에 대한 지침'

구분	주요 내용	
투명성 제고	 소비자 기만 금지 민감한 데이터 수집 시 투명성 보장 불리한 조치에 대한 통지 	
익사결정에 대한 설명	 결정에 대한 구체적 이유 설명 영향을 미친 상위 주요 요인 공개 거래조건 변경 시 통지 	
코의 공정성 보장	 특정 집단 및 계층에 대한 차별 금지 결과의 공정성 보장 정보 접근 권한 및 수정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 	
이터와 모델의 당성 보장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 명문화된 정책과 절차 마련 Al 모형의 유효성 검사	
법령 준수, 윤리, 공정성, 비차별성에 대한 백임 견지	 자가 점검을 통한 편견·피해 방지 무단 사용에 대한 알고리즘 보호 책임 메커니즘 구축 방안 고려 	

라 국가적 차원의 노력

2) 유럽연합(EU)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 » 정의 :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규범
 - » 구성: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확립, 인공지능 구현, 인공지능 적용
 - » 목표: 윤리적 문제해결과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마련



그림 3-23 유럽연합(EU)의 '인공자능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라 국가적 차원의 노력

2) 유럽연합(EU)

표 3-2 유럽연합(EU)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내용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확립 (Foundation Trustworthy AI)	 인간 존중을 윤리 원칙으로 준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배포·사용 어린이·장애인·고용주와 근로자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 권력이나 정보의 불균형에 대응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상당한 혜택과 이익을 주지만 특정 위험도 초래할 가능성에 주의 		
인공자능 구현(Realization Trustworthy AI)	 인간의 기본권·존엄성·자율성 보장 개인정보 및 데이터 거버넌스 다양성, 차별금지, 공정성 책임성 	기술적 견고성 및 안전성투명성사회, 환경복지	
인공자능 적용(Assessing Trustworthy AI)	• '인공지능 구현'에서 언급한 요구 사항을 실제 사례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라 국가적 차원의 노력

3) 중국

- 인공지능 법률과 윤리, 사회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강화하면서 국제협력을 강
 조하는 취지
- '차세대 인공지능 관리 원칙'이라는 가이드라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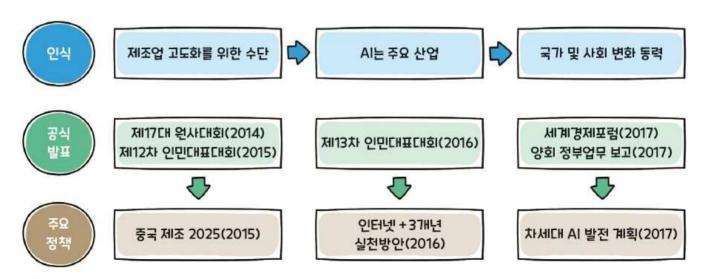


그림 3-24 중국의 인공지능 인식 및 그에 따른 주요 정책 발표

. 국가적 차원의 노력

4) 일본

- '인공지능 활용 7대 윤리지침' 제정 추진.
-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AI, 충실한 AI교육,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 AI
 의 보안조치 확보, 공정한 경쟁환경 유지, 결정 과정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용환경 정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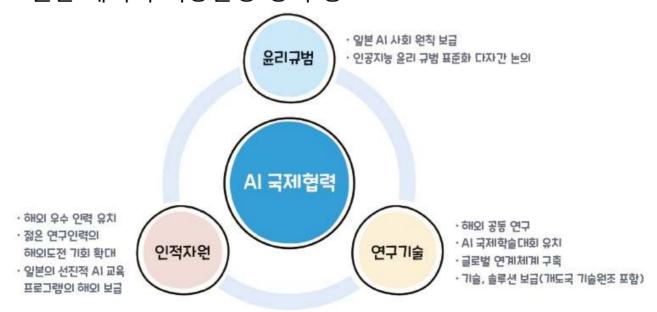


그림 3-25 일본의 AI 전략 39 / 45

라 국가적 차원의 노력

5) 한국

- 2019년,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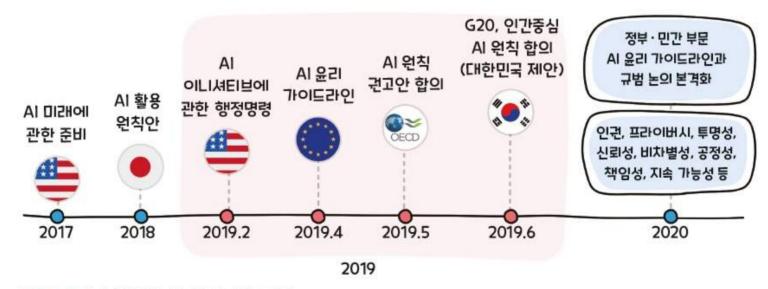


그림 3-26 국가별 인공자능 윤리 가이드라인

Ⅱ. 기업적 차원의 노력

- 마이크로소프트(Mircrosoft)
 - 2017년, 'AI 디자인 원칙'과 'AI 윤리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
 - 2019년, 인공지능 윤리 구현에 필요한 기준을 명시한 '책임 AI 원칙'을 발표
- 구글(Google)
 - 2018년, 미국 국방부 무인항공기 프로젝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
 을 체결하면서 'AI 윤리지침'을 발표





(a) 마이크로소프트 Al

(b) 구글 Al

그림 3-27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Ⅱ. 기업적 차원의 노력

- IBM
 - 인공지능 왓슨(Watson)과 인공지능 로봇 나오미(Naomi) 보유
 - 2020년, MS와 함께 로마 교황청이 제안한 'AI 윤리를 위한 로마콜'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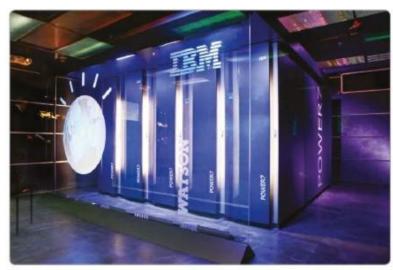




그림 3-28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b) 나오미

Ⅱ. 기업적 차원의 노력

하나 더 알기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 카카오는 2018년 '알고리즘 윤리 헌장' 발표 후 이를 보완하는 작업 진행 중
 - ① **카카오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 카카오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우리 사회 윤리 안에서 다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 ② 차별에 대한 경계: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
 - ③ **학습 데이터 운영**: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를 사회 윤리에 근거하여 수집·분석·활용한다.
 - ④ **알고리즘의 독립성**: 알고리즘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한다.

II. 기업적 차원의 노력

하나 더 알기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 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위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한다.
- ⑥ **기술의 포용성**: 알고리즘 기반의 기술과 서비스가 우리 사회 전반을 포용할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⑦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서비스 디자인 단계부터 주의한다.

Thank You!

